일체만물이 다 마음과 생명 있어

☞ 23면에서 계속

서 독을 꺼내서 어머니 하시지 말라고 자기가 손수 닦아서 무거운 걸 들어다 놔주더랍니다. 이러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착한 아들이 되어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양면이 다 마음으로서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붙들어지지, 마음도 내지 않고 욕부터 하고 벌써 신경질부터 내고 '저 자식은 원수로 태어났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행동하기에 달려있고, 말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부싸움도 내탓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사는 도리를 그대로 해나가신다면 그대로 여여한 법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법당에 가도 공덕이 되게 하려면 모든 거를 다 부처님 앞에 일임해 놓고, 일배를 올리든지 삼배를 올리든지 급하면 일배가 삼배가 되는 수도 있고, 삼배가 삼천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천배가 일배도 될 수 있고, 한생각이 삼만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서, 다기를 한번 모신다 할지라도 둥글려서 한마음으로서 더불어 같이 올리는 그 마음이 몽땅 일체제불의 한마음에 올리는 겁니다. 어떠한 거를 올리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달라, 천도재를 지내달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님들께 재비를 얼마 올렸으니깐 많이 차려줄 테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상들 영령들이 말입니다. 이 중 세계에서 발버둥치면서 먹고사는 것만 집착이 돼서 승천을 못해요. 그러면 이 중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구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먹고사느라고 얼마나 허덕이고 먹고 먹히면서 모두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신을 뺏고 정신을 먹히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들은 서로 먹고 먹히면서 몸이 갈가리 찢어지죠. 우리 인간도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이 갈갈이 찢기고 복등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물건을 쪽 차려놓고 그 냄새를 맡게 하지 마시고 둥그런 떡 하나 놓고 향 초 그리고 물이나 한 그릇, 영가상 옆에다가 물이나 큰그릇에다 한 그릇 떠다놓고 부처님 다기 그냥 내려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내신다면 영가들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봐요. 위패를 써 놨으면 꽃을 한 송이라도 갔다 놨으면 거기에 영접을 하고, 떡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마음의 떡이기 때문에 떡 하나 가지고 이 세상 만물 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는 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리를 하시게끔 해드려야지 자손 된 도리로 지극한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되고요. 부처님이 아마 내려다보고 웃으실 겁니다. 왜냐? 하하하. 참, 간편하게 잘 하는구나. 가르친 거를 뜻으로 이렇게 하니 버리면 얻는다더니 어쩌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껄껄 웃으실 거예요, 아마.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가질 게 없어서 다 버렸더니 몽땅 하나도 없이 버릴 게 없더랍니다. 버릴 게 없어서 여러분한테 또 펼치는 겁니다.

내탓 네탓 따지지 말고
안과 겉을 화목하게
자비로 베풀수 있다면
부처님 뜻 따르는 법

그러니 펼쳐드린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풍족하게 사시라고 그 뜻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받들어서 오로지 오늘부터라도 여기 스님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 보시면서 열심히 가정에서 살아나가는데 이익이 되며 내 몸뚱이에도 이익이 되고, 내 몸뚱이가 허망하다고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자기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들의 집합소니까, 집합소가 무너진다면 그 중생들도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힘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기보다도, 내가 노래를 하나 지어놨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하고, 이 노래는 부처님 법음으로 정해져서 그냥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둘로 보지말고 살아야지, 항상 둥글고 모가 나지 않게 살아야지, 항상 말로 하지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내야지, 마음에서 스스로서 움쭉거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다 말로 어떻게 하리까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까 또는 생활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길어지면은 정말 견성 성불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말 안 할 수가 없네.



그림 · 최주현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만나는 게 견성
마음공부로 차원 높여야 시대 · 과학 발전

끼리끼리 모이는 인연

견성이라는 것은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상봉하는 길입니다. 그게 '견성' 입니다. 상봉을 한다면, 얼른 쉽게 말하자면 어린애를 불쑥 하나 낳아놓은 것밖에는 안됩니다. 성불을 하려면은 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애를 금방 낳은 거는 돈오라고 하고 어린애를 낳아서 어른 될 때까지 기르는 과정을 점수라고 하죠. 양면이 다 없어진다면 나중엔 돈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불을 마치면은 우리가 살아서 열반을 해야지 죽고 나서 무슨 열반이 있습니까? 살아서 열반인 겁니다. 살아서 열반을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그거는 열반이 아니죠.

열반의 구경경지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이 세상을 한 찰나에 들고나면서, 과거 미래를 한 찰나에 들고나면서,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보살로 화해서 털 구녁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어느 누구든지 아프다면 약사가 돼서 응신이 돼 주고, 또 가난하다고 원할 때는 관세음이 돼 주고, 또는 명이 짧으면은 칠성이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염하면은 지장이 돼 주고, 밝게 깨우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비로소 아촉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미륵이 되고 때에 따라서 물에 가서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는 바로 주해신을, 주해신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다 '너만이 나를 건질 수 있어' 하면은 그냥 주해신으로 나투어 주신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죽게 돼서 주인공에 관하면 주산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고, 어느 거든지 아니 돼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것을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도, 여기 노스님과 총무스님 주지스님 모두 여러분이 차원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러니 이 높으신 스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인연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천년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도리입니다. 그러면 고만 할까요? 하하하…. 고만 하는 게 좋겠죠?

▲대중: 아니요. 더해 주세요.

▲스님: 뭘 더해요, 맨날.

▲대중: 스님이 하실 말씀은 다했지만 못 알아듣는 중생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내가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지금 중 세계 지구라는 자체가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전부들 빼먹으려고만 하지 갔다 숨기려고는 안 하거든. 욕심들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그저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집이 무너지든 말든 태양력이 팽창이 되든 타버리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임시로 먹고사는 데만 그냥 눈이 벌겋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간다면 꺼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높은 선반에 얹어 놓은 것 밖에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야 꺼내먹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야 차원 높은 데 있는 거를 꺼내먹지 않겠습니까?

집착 강하면 승천 못해

그런데 우리들은 차원이 낮고 꺼내 먹을 에너지는 높은 데 있고 그러니 어떻게 그걸 꺼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차원들이 높아져야 시대가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이 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 돼서 발전이 된다면 높은 데도 꺼내먹을 수 있겠죠. 허공에 에너지가 그득하니깐 꺼내 먹을 수가 있겠죠. 하니깐 우리는 볼가부득히 이것은 가정에서 무슨 조그만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이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다면 또 난리가 났을 때에 투입할 수 있다면, 체가 없는 마음은 수만 개로도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빛보다 더 빨리 찰나에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도리를 깨우쳤다 할지라도 연방 베풀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들 높지 않아도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한테 이끌려서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선 삼천 년 전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경전을 볼 때에, 여러분이 경전을 보시고 말로 이론으로 달달 다 아시기만 하고 머리로 쓰시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으로 경전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경전이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가 경전을 보지 않고도 경전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척 심각한 말입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여러분이 다 한 버스 안에 담겨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다볼 수도 없으면서,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종교마다 싸우고 모두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아! 이거는 버스 안에 의자 하나씩 전부 끌어안고는 싸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불교는 아주 심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입니다.

두서 없이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난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고 위대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이상 참 행복하십니다. 지금 정말 어떠한 분들이, 좀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스님네들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요. 인제 고만 하렵니다.

※위 법문은 1996년 3월 26일 명법사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대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주) 화동섬유
리히스 건강지압양말
무릎, 팔꿈치
지압 보호대
쾌적함, 온열감, 무좀, 습진, 습윤감등으로 인한 숙취해소
건피부, 발냄새 제거,
피부노화방지, 피부회복에
탁월한 효과
대표 김태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전화 : 053) 582-1244
팩스 : 053) 581-1259

부산불교자비원
원 장 정 각
이사장 김성길
◆김해노동선방
◆부산불교문화대학
◆월간「큰수레」발간
◆큰수레 경전연구원
◆큰수레 문화학당
◆자비의 전화 · 무료법률상담
◆교도소 · 구치소 방문
◆자비장학회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조선족 중국동포 초청연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번지
TEL : 051)403-4848 FAX : 051)403-4860

대중포교를 위한 월간지
맑은소리 맑은나라
월간『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대중포교를 위한 불법홍포지로서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문서포교지 입니다.
도서출판『맑은소리 맑은나라』는 사찰사보를 대행 발간하는 사찰사보 전문 출판회사 입니다.
◆ 부대사업 : 출판, 기획, 광고물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4 그린타워 5F
TEL : 051)441-0263 FAX : 051)464-0953

부산불교회관
○ 여여선원 · 여여정사
○ 부설 신행학교
○ 개금사회복지관
○ 금정사회복지관
○ 보현어린이집
○ 양정노인 복지관
○ 선혜마을(실직자 쉼터)
선원장 · 관장 정 여
사무국장 전성기
국 장 박용하
소 장 홍석환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 051)853-5486~7